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약속대련’ 일까? 아니면 ‘실전’ 일까? 주말부터 이번 주를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윤석열 vs 한동훈’ 맞짱을 바라보는 양론이다. 약속대련이든 실전이든 둘의 근거는 유사하다. 한쪽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등장’해서고 다른 한쪽은 그가 ‘지목’되어서다. 등장 이든 지목이든 이 실장은 “(대통령의 비대위위원장) 사퇴 요구”를 전달한 사람이다.

약속대련의 이유는 간단하다. ‘한동훈 밀어주기 이벤트’를 통한 총선 승리다. 총선 패배는 윤 대통령에게는 식물정부이고, 한 위원장에게는 강제퇴출이다. 둘의 공동 목표는 ‘대선승리의 선거연합’ 복원을 통해 가능하고, 특히 수도권 선전(최소 37석+)은 필수적이다. 수도권 승부는 원내 과반 의석 확보는 물론 민주당과의 원내 1당 경쟁이 가능한 출발점이다.

다수설은 ‘실전론’이다. 용산의 누적된 불만의 폭발이라는 해석이다. 그들의 공식적 설명은 원칙적이다.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도 지냈으니 시스템 공천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컸

‘윤석열 정치’의 한계와 V2

는데 오히려 정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김 여사는 불법적인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이라는 언급이 ‘김 건희 리스크’를 제기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주요 타격 방향이라는 것을 가리지 못한다. 문제의 핵심은 ‘디올 백 사고와 책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한 위원장 거취문제는 간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언급도 공허하다. 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사퇴요구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배 문제에 따라 정치(당무)개입 또는 직권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누구의 부하도 아니지만 모두가 자신의 부하인 ‘윤석열 당(黨)’을 원하지만 김건희 리스크의 윤석열 당으로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수도권 승부는 어렵고 수도권 선전 없는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윤석열 당”을 향한 지난 2년의 행보는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 된다. 그의 목표가 총선 승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이대로도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총선 예상 의석이 ‘민주당 160석+ 국민의힘 120+’라고 하면 지금 이대로도 총선 승리는 아니다. 오늘 현재 ‘8대 2’ 정도로 민주당 우세론이 대부론이다.

만약 ‘윤 vs 한’ 1차 충돌이 ‘김건희 디올백’에서 출발하여 윤석열 당의 부하 중 하나인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로 표현된 것이고 또 대통령의 목표가 총선 승리가

아니라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V2 보호’다. 주말 전후 상황 전개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보여지고 대통령실의 보좌 실패로 일컫는 부분도 V2 가능성을 높인다.

윤석열 당의 완성은 공천이다. 화제 현장에서 공개적인 정치적 회화의 모습으로 일단 봉합된 여권 내 권력 갈등의 2라운드를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김경률 거취와 출마도 그 중 하나다. ‘결사옹위 세력구축 vs 총선 승리를 향한 미래기획’의 불가피한 충돌이다. 총선 승리 없는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사퇴요구를 거절했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은 권력의 추를 이동시키는 출발점이다. 대통령에게는 명분도 없고 세력도 이전 없다. 48-18-3 응집력이 급격히 약화된 친윤 홍위병 소리를 들을 정도로 초라해졌다. 스스로 자초한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다. 윤석열 권력의 인식과 능력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권력의 말은 신뢰를 잃었고 권력의 능력까지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권력의 신뢰와 능력 위기다. 특히 대통령이 과연 공공성을 이해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우선적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람들은 ‘공적 가치와 V2가 충돌할 때’ 대통령이 무엇을 우선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가사에 얽매어 국사를 그르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을 묻는 것이다. 잘못된 고칠 수 있고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치’의 한계다.

社說

‘신당 부적절’ 전남지사 발언...호남민심 대변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창당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그제 전남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등에서 “다당제와 양당제 중 뭐가 좋을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평상시, 즉 비선거철에 하는 얘기”라며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분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뜻을 함께 모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한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를 보면 상당히 낮은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을 위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기대 이하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이준석 신당이 7%인데 반해 이낙연 신당은 4%에 그쳤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선 4%로 이준석 신당

(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원 씨앤에이가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2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선 이낙연 신당의 호남지역 지지율이 6.3%로 이준석 신당(9.3%)보다 낮았다.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조차 이준석 신당에 밀리는 현실이 이낙연 신당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이낙연 신당은 옳지 않다’는 김 지사의 발언은 지역 민심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남지역 현역 광역단체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낙연 신당이 정권 심판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고 야권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호남권에선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순간부터 ‘배신자’라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낙연 신당은 이번 총선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호남 민심과도 맞지 않는다. 지역민들은 이낙연 신당이 정권을 되찾아 오려는 민주당의 앞날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은 민심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도민 열망 ‘국립의대 설립’ 총선 전국 이슈로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지는 여론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대한전공의협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남 지역민들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총선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는 아예 국회에서 지역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오는 설 연휴를 전후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30년 지역 숙원인 국립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국립의대 유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남도의 의대 설립 추진은 물론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차원의 유치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은 정부의 강력한 의대 정원 확대 의지와 맞물려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실제로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전남은 노인 인구비율 전국 1위(25.6%), 장애인 인구비율 전국 1위(7.6%)로, 도내 276개 유인도 중 의사가 없는 섬이 164개에 이른다. 게다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군이 의료 취약지인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다행인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조직된 의협이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 행보가 변수다. 정치권과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을 열망한 지역 의료 현실과 연계시켜 총선 이슈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국립의대를 운영하는 방안 등 국립의대 현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영혼 속에는 업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다. 그것을 아뢰야식 또는 합장식(咸藏識)이라고 한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블랙박스과 같은 기능을 가진 합장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저장해 놓은 식은 예민하고 복잡해서 어떻게 업장을 받아서 저장하는지 또 그 업장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식별해서 받아들이는지 알 수가 없다. 사람마다 이 아뢰야식에 저장해 놓은 성격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르고 얼굴 모습이 다른 것은 전부 내가 무엇을 저장했기에 따라 그렇다.

그런데 이 업 주머니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무엇이든 다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땅이 좋은 종자와 나쁜 종자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다 전부 받아들이나가 저장식이 고 한번 들어가면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것이 나올 때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나오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빼낼 수 없어서 ‘사수(捨受)’라고 말한다. 그리고 집어 놓으면 반드시 썩어 타서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저장식이다.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저장하는데 어떤 종자가

업보(業報)를 전환하라

들어가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이숙식(異熟識)이다.

한번 들어간 종자는 때가 되면 점점 밖으로 나오는데 이 종자가 기존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금생은 사람인데 다음에는 다른 류(類)로 태어날 수도 있어서 이숙식이라고 한다. 이숙식은 세 가지 뜻이 있다. 장소를 옮기고 때를 달리해서 변하고 또 종류를 달리해서 변한다. 우리가 종자를 뿌려 놓으면 그 종자이긴 한데 처음 모습에서 부풀려져 점점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숙이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싶든든 어다가 아파서 못하게 만들거나 무슨 장애물이 생겨서 못 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지어놓은 업보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생에 이 업을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지가 큰 과제이다. 업은 크게 세 가지로 주머니에 들어간다.

첫째는 감각한 것이 들어간다. 느꼈다고 의식을 해도 들어가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들어가고 내가 그것을 전혀 감각하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간다. 이것이 촉(觸)인데, 내 몸이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의식하지 의자에 앉았다는 감각을 해서 들어가듯이 나의 안이 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로 감각한 것들은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생을 살면서 좋은 환경이나 도가의 환경에 살면 그런 것이 내 감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둘째는 생각한 것이 들어간다. 이것이 상사(想思)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상(想)이고 더 깊고 민하고 생각한 것은 사(思)이다. 우리가 아무개가 그림고 아무개가 밍다는 생각만 해도 그것이 다 들어간다.

누군가가 나를 멀리서 미워한다면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해도 영혼은 그것을 감지해서 저장한다.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 영혼 속에 안테나를 달아놓고 신기하게 뭐든 감각해서 저장하니까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욕을 해도 전부 접수(畵入)하는 것이다. 우리의 업은 마치 작은 냇물이 큰 강물로 흘러가듯이 전생에 지어놓은 것은 나도 모르게 폭포수같이 압력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고 나가는 작용을 반복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지저분하고 못된 감각과 생각과 행동은 빠져나오고 금생의 성스러운 생각과 성스러운 작용은 많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좋은 업을 다시 저장하고 나쁜 업을 환류(還流)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업이 나올 때는 전생에 저 사람과 원수였다면 금생에 그 사람을 보면 의식이 ‘저사람 고약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용한다. 그래서 행동을 말로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돌리자는 말씀이 참 좋은 마음 공부이다. 원망을 감사로 돌리고 타락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고 이렇게 업보를 좋게 변형시켜서 저장하는 것이 업보 전환이다.

무슨 일이든지 감수불보(甘受不報)라하는 말이 있다. 달게 받는 것이 업을 소멸하는 길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달게 받지 못하고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낳아줬어, 왜 세상은 나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하고 원망한다. 그러니 업은 업대로 받으면서 원망을 하다 보면 원망의 업도 쌓이고 새로운 업도 짓게 된다. 스스로 괴로워지고 새로운 업을 굳게 짓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삶속에서 울 한해 상도 없고 애착도 없고 욕심도 없는 청정일념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한다.

기 고



한근우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교수

시간의 시작점을 ‘빅뱅(Big Bang)’ 이후로 가정한다면, 드넓은 우주의 작은 한 점 행성 지구 속 우리도 눈스톱으로 달리는 시간이라는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다. 시간이라는 열차는 멈출 수 없는 제동장치가 존재하기 없기에 우리가 시간을 거스르는 것은 예시당초 불가능하다. 휴어 SF 영화 속 ‘스트레인지 박사’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시간을 손쉽게 되돌리는 능력이 있지만, 현실 속 세계에서는 0.000000000000퍼센트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실정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유지원생도 아는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인간은 적어도 일말의 시간이 라도 잡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초기 인류는 동굴의 사냥 벽화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 시간의 일부분을 재단해 벽화로 남겼을 것이다. 이후 재단된 시간은 활자로 문서가 되어 기록되기도 했다. 혹은 새하얀 캔버스를 바탕으로 알록달록 한 물감으로 사실감 있게 채색된 채 시간을 사로잡기도 한다. 현대

사진, 시간을 붙잡다

에 와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간을 저장하는 행위는 소리, 음성, 노래 따위를 녹음하거나 사진, 동영상 등의 영상 매체로 보다 진보된 형태로 시간을 사로잡게 되었다.

이 중에서 사진만큼이나 인간의 시간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매체가 또 있을까? 한 장의 사진은 정적이고 제한적인 시간을 사로잡는 매체이지만, 우리는 인생에 있어 늘 사진으로 그 시간을 간직하고 싶어 한다. 어느새 칠순이 훌쩍 넘어버린 부모님 댁에 가보면 거실과 안방에는 다양한 사진이 걸려 있다. 비교적 최근 부모님 사진도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의 필자 보다 더 젊디 젊은 모습의 부모님과 한창이나 어린 필자와 누나들의 웃음 가득한 가족사진이 눈에 띈다. 사진을 보고 있자니 다시금 어린 시절로 돌아가 지금보다 한창이나 젊은 부모님과 맘껏 뛰놀고 싶은 생각이 든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손안에는 카메라를 하나쯤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동네 사진관을 찾는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자궁을 벗어난 세상과 조우한지 100일 쯤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또,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와 마주했다. 카메라가 탄생하고 보급된 이래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해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진은 개인의 행복한 일상을 넘어서 저널리즘

의 도구로도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가 다양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사진을 찍거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유된 사진은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의 한정된 저장공간에만 보관된 것이 아니라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공간에 실시간 업로드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사진은 넘쳐나지만, 그 사진이 출력되어 집안 벽 어느 곳에 걸려지는 것은 오히려 줄어들 듯하다(필자의 집에만 봐도 벽에 사진이 없다). 이렇듯 사진은 우리들의 좋거나 혹은 나쁜 기억에 시간을 매순간 오래내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아쉬운 대로 우리는 시간의 찰나(刹那)를 건지는 행운은 얻게 된 것이다.

시간의 흐름과 사진이 만나면 우리는 과거로 여행뿐만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간직할 수 있다. 아마도 미래의 우리에게 남길 소중한 기록들은 오늘의 작은 사진 하나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순간에서 시간을 간직할 수 있고, 그 간직된 순간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시간의 열차에 탑승한 승객으로, 사진을 통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며 여행하는 것이다.

無等鼓

경계는 끝없이 추락하고 정치는 한없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지금은 철학의 위기가 필요한 시간. 폭력과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서점가에는 쇼펜하우어 열풍이 뜨겁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쇼펜하우어 아프리카-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관련 책들이 한꺼번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 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의 부유한 사업가 아버지와 유명화가 어머니 사이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러나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어머니가 사교계에 진출하자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학문으로 진로를 바꿨다. 그는 30대에 베를린대학에서 강의할 만큼 촉망받는 학자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 헤겔이 있었다. 첫 강의부터 강의실이 텅 빈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자 학계를 떠나 은둔의 삶을 산다.

쇼펜하우어가 유명해진 것은 40대 중반에서부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바탕으로 지혜와 처세술을 정리한 수

필집 ‘소품과 부족’이 뜻밖에도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은 ‘행복론과 인생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많은 명언을 남겨 60대엔 철학자로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 70세 생일에는 전 세계에서 축하 편지를 받을 만큼 명성을 떨쳤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눈여겨봐야 할 책도 있다.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이다. 여기에는 “뻔뻔해져라.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거나, 거짓 추론과 왜곡을 통해 억지 결론을 끌어내라, 인신공격을 하라” 등 막장 싸움 기술들이 들어있다. 왜 이런 책을 썼을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려는 속성을 타고났다”고 말한다. 이 책은 상대가 비겁한 방법을 썼을 때 휘말리지 않는 법을 역설적으로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까? 못 볼 격정은 안 해도 된다. 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별 후보가 선출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나타날 것이다. /유재관 편집장@국정 jkyou@

논쟁의 기술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